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플랫폼 ‘민주 파출소’ 출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산하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은 오는 1월 6일(월)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공식 출범한다.

‘민주파출소’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제보받고, 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신고하기’ : 허위 조작 정보 제보 접수.
- ‘호신술’ : 허위 조작 정보 유형별 자체 신고법 안내.
- ‘유치장’ : 접수된 허위 조작 정보의 진행 과정을 공개.
- ‘교도소’ : 접수된 허위 조작 정보의 처리 결과 공개.

‘민주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배너 및 별도 링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허위조작감시단은 민주파출소 운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2일 첫 활동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은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첨부] 민주파출소 링크 : <https://minjoopolice.com>